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쾌거를 이룬 축구 대표팀 허정무 감독이 8일 오전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원가를 생각하고 있다. 허감독 뒤로 회복훈련에 나선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러닝으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여고생’ 광예지 양궁 월드컵 2관왕

‘여고생 신공’ 광예지(대전체고)가 발군의 실력으로 양궁월드컵 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쓸었다. 광예지는 7일(한국시간) 오후 터기 안탈리아에서 계속된 국제양궁연맹(FITA) 양궁 월드컵 3차 대회 개인전 결승 라운드에서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여자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대표팀 선배 윤옥희(예천군청)를 107-101로 여유있게 물리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양궁협회가 8일 전했다. 첫날 7점으로 다소 부진한 출발을 한 광예지는 윤옥희가 5발째 6점을 기록하는 등 12발 중 단 한 발만 10점을 쏘는 부진을 틈타

월드컵 개인전 첫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다. 광예지는 앞서 여자 단체전에서 1위에 올랐었다. 광예지는 9일 울산에서 열리는 양궁 세계선수권대회 참가자를 가리는 다섯 차례의 대표 선발전에서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을 모조리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 양궁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주현정(현대모비스)은 3-4위전에서 중국의 어우양 루위를 110-109 한 점 차로 제치고 3위를 차지해 한국 여자 대표팀은 금, 은, 동메달을 싹쓸이하는 쾌거를 이뤘다. /연합뉴스

김연아 등 은반스타 ‘8월의 아이스쇼’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가 세계 정상급 은반 스타들과 함께 시원한 아이스쇼를 앞세워 8월의 무더위를 날린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는 오는 8월 14일부터 사흘간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체조경기장)에서 치러질 ‘삼삼 에니블★하우젠 아이스 올스타즈 2009’에 출연진을 8일 공개했다. 이번 아이스쇼에는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우승자인 에반 라이사책(24.미국), 2008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에 빛나는 제프리 버틀(27.캐나다), 2007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에서 우승한

스테인 람비에(24.스위스) 등 ‘꽃미남’ 선수들이 출연한다. 여자 싱글에서는 김연아를 필두로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조애니 로세티(23.캐나다)를 비롯해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아라카와 시즈카(28.일본)가 나선다. 또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페어 우스팀인 알리오나 사브첸코-로빈 즐코비(독일) 조와 2007 세계선수권대회 페어 금메달리스트 쉐누아-자오홍보(중국) 조도 단반을 빛낸다. /연합뉴스

이세돌 9단 휴직계 제출

이세돌 9단이 결국 휴직계를 제출했다. 최근 한국리그 불참 및 중국리그 대국료 일부 기사회 납부 거부, 각종 시상식과 추첨식 불참 등의 문제로 바둑계와 마찰을 빚어왔던 이세돌은 8일 오후 친형인 이상훈 7단을 통해 한국기원 사무국에 정식으로 휴직계를 제출했다.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 대국에 집중할 수 없다’고 휴직 사유를 밝힌 이세돌은 오는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8개월간 바둑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세돌은 지난달 26일 프로그사 총회에서 자신의 한국리그 불참에 대해 대다수 기사들이 징계 건의를 결정하자 휴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조선대 강문규·김주훈

한국 주니어 하키대표팀이 ‘조선대 쌍포’ 강문규·김주훈의 맹활약에 힘입어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한국은 7일(이하 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조호르에서 열린 제5회 세계남자주니어월드컵 하키선수권대회 C조 조별리그 첫날 경기에서 전반 18분 강문규, 후반 23분 김주훈이 각각 1골씩을 기록해 미국을 7-0으로 가볍게 제압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강팀과 자주 싸워 경쟁력 높여라”

허정무 號 남아공 16강 프로젝트 본격 가동 파라과이·호주·유럽 1위팀과 잇단 평가전

‘강팀과 경기로 한국 축구의 경쟁력을 높여라.’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쾌거를 이룬 축구대표팀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16강을 목표로 남아, 유럽, 아시아의 강호들과 친선경기를 잇달아 벌인다. 대한축구협회는 A매치 데이인 오는 9월5일 ‘사커투’ 호주를 불러들여 평가전을 하기로 양국 축구협회 협의를 마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산하 국가 중 가장 높은 29위인 호주는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에서 4승2무로 동등한 일본과 함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FIFA 랭킹 46위인 한국은 펠 베퍼백 감독이 지휘하는 호주와 역대 A매치 상대전적에서 5승8무7패로 뒤져 있다. 하지만 1998년 2월11일 친선경기에서 0-1로 진 이후 2000년 10월 LG컵과 이듬해 6월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각각 4-2와 1-0으로 이겨 2연승 중이다. 호주는 선수들의 체력 조건이 좋은 데다 유럽식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을 앞둔 한국에 좋은 상대가 될 전망이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이에 앞서 8월12일에는 남미의 ‘북방’ 파라과이와 친선경기를 벌인다. FIFA 랭킹 13위인 파라과이는 월드컵 남미예선에서 동

률인 ‘삼바 군단’ 브라질에 골득실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줬지만 6승6무1패(승점 24)를 기록 중인 강팀이다. 한국은 파라과이와 역대 상대전적에서 3무1패로 지난 1986년 2월 패배를 시작으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허정무호는 10월에는 아시아 이외의 팀과 평가전을 추진하고 있고 11월에는 월드컵 유럽예선 1위 팀과 평가전을 치를 계획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맞붙을 잠재적 적수인 유럽의 강팀들과 친선전을 벌이는 ‘체질 강화 프로젝트’인 셈이다. 조준연 축구협회장도 앞서 “우리 대표팀이 11월에 유럽에 나가서 수준 있는 팀들과 평가전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평가전이 예상되는 11월14일과 18일은 유럽 예선 조 2위 팀들이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A매치 데이여서 대표팀 주장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비롯한 해외파들이 참가할 수 있다.

허정무 “사우디전 최상의 멤버 가동할 것”

조준연 “북한이 사우디·이란 이겨달라 부탁”

허정무 축구 대표팀 감독이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7차전에 최정예 멤버를 가동할 뜻을 밝혔다. 허정무 감독은 8일 경기도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회복 훈련을 지휘한 뒤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에서는 가용 인력 가운데 최상의 멤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허 감독은 이어 “매 경기가 중요하고 한국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면서 “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되면서 남은 월드컵 최종예선 두 경기에 비주전급 선수들을 넣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상의 전력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허 감독은 “선수들이 최종예선을 무패로 끝내려는 강

한 의욕을 갖고 있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본선을 위해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감독은 이와 함께 월드컵 본선 준비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도 밝혔다. 그는 “역대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의 조 편성을 보면 유럽 두 팀이 같은 조에 속했다”면서 “16강에 오르려면 유럽과 대등하거나 유럽을 넘어야 한다”면서 “체력 면에서 박지성과 같은 수는 없었지만 그에 버금가는 체력을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FIFA 총회에 참석했던 조준연 대한축구협회장은 “북한의 월드컵 본선진출 의지가 강했다”면서 “북한 축구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사우디와 이란전을 꼭 이겨달라고 부탁하더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0621-225-1688 H.010-3565-2888

지역	소재지	면적	총/승수	감평가	최자가
서울	금호동 중흥아파트	23	18/12	8300만	8500만
	용인동 대우테크빌2차	46	17/8	1억8500만	1억2900만
	차림동 금호타운	33	17/1	1억2300만	8600만
	송파동 삼성그린	33	17/15	9000만	8300만
	송파동 오현현대	55	22/22	4억	2억8000만
부산	금호동 현대아파트	32	20/17	1억2000만	8400만
	송파동 금호타운	24	15/1	7800만	5460만
	송파동 리안아파트	32	25/22	1억1000만	7700만
	송파동 밀지아파트	27	15/5	6000만	4200만
	송파동 금영아파트	32	20/9	1억2800만	8900만
대구	산수동 리안아파트	50	15/12	1억8500만	1억1500만
	송파동 리안아파트	31	18/1	1억1000만	7700만
	지산동 삼성아파트	32	15/11	9400만	6600만
	안동동 우미아파트	32	18/7	8000만	5600만
	송파동 우미아파트	32	20/8	1억1000만	7700만
대구	송파동 우미아파트	32	20/8	1억1000만	7700만
	송파동 우미아파트	32	20/8	1억1000만	7700만
	송파동 우미아파트	32	20/8	1억1000만	7700만
	송파동 우미아파트	32	20/8	1억1000만	7700만
	송파동 우미아파트	32	20/8	1억1000만	7700만

강한 남자로 만드는 센-놈

사람의 몸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며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됩니다. 이 세상에는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전과 같지 않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센놈이 있어 희망을 드립니다. 우뚝 솟으며 지속적이고 반영구적으로 간편하며 그녀가 선호하는 강한 사대로 될 수 있는 신제품입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하여 사진은 기재될 수 없습니다.)

상담 070-7786-8710/070-7786-9710
전화 010-5296-4114
글로벌 농협 569-12-034626(배의자)